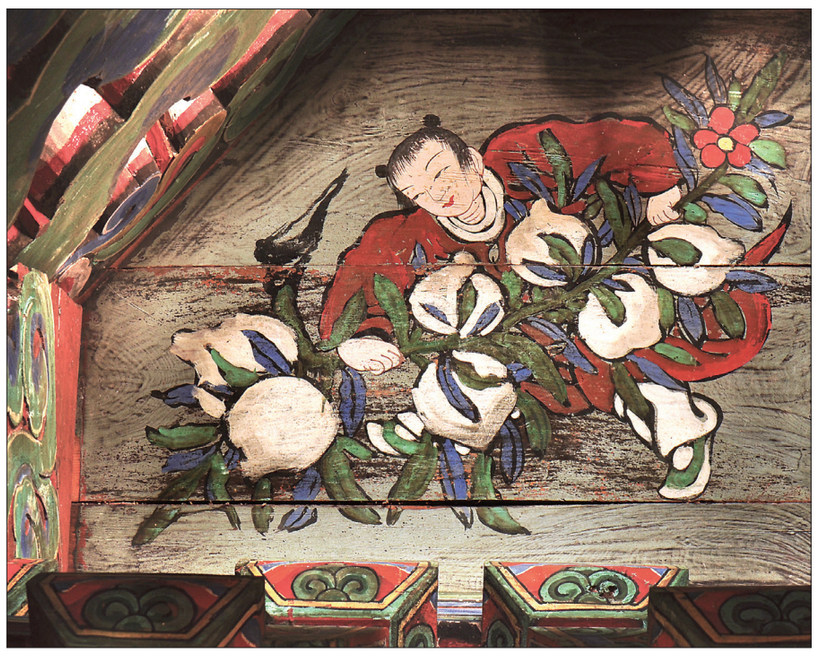
공양비천, 천도 가지 공양 올리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⑲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비천벽화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천정의 천도 공양비천.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천정의 석류 공양비천.

한 사찰 내 세 불전건축에 걸쳐 총 45점 비천벽화 조성한 사례는 남양주 흥국사가 유일하며 최대 비천벽화 속에 도교적 신선 담아

	제작 시기	평균 크기	비천 수	비천 구성	조형 특성
대웅보전	1888년	166×90cm	11점	주악:10, 공양:1	비천 모두 남성, 주악비천 중심
시왕전	1888년	130×55cm	15점	주악:10, 공양:3, 가무:2	훤칠한 천동, 천녀의 주악비천 중심
영산전	1892년	85×80cm	19점	주악:9, 공양:6, 가무:3, 신선:1	과일 공양 올리는 여섯 분의 동자비천 인상적

〈표〉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구성과 현황

남양주 흥국사, 경산화소의 본거지

한국산사의 비천벽화는 완주 송광사 대웅전, 합천 해인사 명부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현존한다. 비천벽화는 하나의 전각에 보통 10여 점씩 집단 형식으로 조성된다. 세 전각을 하나로 합친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경우 비천벽화를 무려 42점이나 조성했다. 하나의 전각에 기악과 가무, 공양비천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어 장관을 연출한다. 한 전각에 현존하는 비천벽화 최대 최다의 사례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수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어디일까? 그곳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남양주 흥국사다.

남양주 흥국사는 다섯 규정소(糾正所), 곧 오규정소 중의 하나였다. 오규정소는 조선시대에 승풍을 정화하고 규율을 감독하기 위해 다섯 곳의 큰 절에 설치한 감독기관이다. 조선 중기에는 봉은사, 용주사, 봉선사, 개원사, 중흥사 등에 설치했다. 1790년 조선 후기의 오규정소는 봉은사, 용주사, 봉선사, 백련사, 흥국사(남양주) 등의 다섯 곳이었다. 규정소는 왕실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비는 원당(願堂) 성격도 가졌다. 규정소의 '규정(糾正)'은 잘못을 밝혀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남양주 흥국사는 규범을 갖춘 오규정소 중의 한 곳이었고, 동시에 예술인을 배출하던 화소사찰(畵所寺刹)이었다.

화소사찰은 불화를 그리는 화원, 곧 불모(佛母)들을 전문적으로 길러 배출하는 화원 양성 사찰을 말한다. 화소사찰은 화원 양성과 불모 화맥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소가 경산화소, 북방화소, 남방화소 셋이다. 북방화소는 금강산 일대를 화원 활동 중심지로 삼은 화소다. 북방화소 중심에 유점사가 있었다. 남방화소의 중심 사찰은 마곡사였다. 마곡사는 지금도 전국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불모들의 비림을 조성하여 화맥과 화풍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어 한국 불교미술사의 성소로 조명되고 있다.

경산화소는 서울·경기지역 불모 양성소로 중심 사찰이 바로 남양주 흥국사다. 그 무렵 흥국사 화원들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 "흥국사 중은 아궁이에 불 때면서도 부지깽이로 시왕초를 그린다." 경산화소의 본거지였던 남양주 흥국사의 위상은 대웅보전과 영산전, 시왕전 등을 장엄한 벽화에 투영돼 있다. 전국의 사찰 중에서 비천벽화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배경도 그 같은 경산화소의 중심 사찰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대웅전 · 영산전 · 시왕전에 45점 비천벽화

흥국사는 오늘날 몇 점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을까? 흥국사 비천벽화는 모두 불전건물 내부 빗반자천정에 조성했다. 대웅보전 천정 빗반자에 11점, 시왕전에 15점, 그리고 영산전에 19점 등 총 45점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다.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을 천진난만한 동자와 동녀로, 무속인의 모습으로, 전문 예술인의 모습으로, 신선의 경지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장면이 경이롭다. 여러 화원의 저마다 다른 개성과 안목, 표현, 채색 등으로 비천벽화의 흐름과 양식 등을 한자리에 결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사찰의 세 건축공간에 걸쳐 다양한 붓질로 해석한 비천벽화 45점을 펼쳐 놓은 곳은 남양주 흥국사가 유일하다. 하나의 소재로 세 곳의 불전장엄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의 계승과 흐름이라는 불교미술사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구성과 현황은 〈표〉와 같다.

세 불전의 비천벽화 제작 시기는 거의 동일한 시기로 본다. 대웅보전과 시왕전은 1888년 제암 스님과 벽암 스님의 단청불사 때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며 영산전의 비천벽화는 그로부터 4년 후인 1892년 제암 스님이 영산전을 창립하여 단청불사할 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附)흥국사사적〉에 임진년(1892년) 제암대덕이 공사비를 모금해서 영산전을 창립하고 단청불사를 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1892년 5월에 그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사 공양비천 벽화의 백미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중에서 종교교의와 장엄예술의 미를 두루 갖춘 수작은 영산전의 비천벽화다. 영산전의 비천벽화 19점 중에서도 어간 출입문 위의 주악비천 세 점과 순수한 동자로 표현한 공양비천 여섯 점의 벽화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간 출입문 위의 주악비천은 원형고리로 장식한 선녀머리의 여성 비천이다. 해금, 횡적 등을 연주한다. 천의와 표대 자락이 뒤엉킨 곡선이 음악의 선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색채, 구도, 형태 묘사, 분위기, 선율 등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종교와 예술이 만난 장엄예술의 극적인 승화 장면을 잘 보여준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비천벽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 동자로 표현한 다양한 공양비천의 해맑음과 천진난만한 표정에 있다. 뭉게구름 위에 천연스럽게 앉아 잘 익은 커다란 석류를 두 손으로 받쳐 든 동자의 해맑은 표정을 보라. 익어 터진 석류의 씨앗이 곧 저 동자이고, 동자가 곧 씨앗이다. 석류는 다남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또 다른 공양비천 동자는 머리 위로 붉은 쟁반을 두 손 받쳐 들고 간다. 붉은 쟁반에는 하얀 천도(天桃) 두 개와 부처님 손 모양으로 생긴 불수감 두 개를 담았다. 천도는 장수의 상징이고, 불수감은 다복의 염원을 담고 있다. 민간신앙에서 석류와 천도와 불수감은 '삼다(三多) 문양'으로 불린다. 다남, 다수, 다복의 상징성 때문이다. 석류와 천도와 불수감을 앳된 동자가 공양 올리는 장면으로 표현한 비천벽화 속에 민간의 간절한 기복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산전 비천벽화 속엔 특별한 장면도 눈에 띈다. 오방색 옷차림을 한 동자가 한 손엔 도끼를 들고 다른 손엔 약초 바구니를 들고 가는 특별한 벽화다. 모티프는 하선고(何仙姑)로 보인다. '선고'는 도교적 선녀를 말한다. 하선고는 쉽게 말해 하씨 성을 가진 선녀의 의미다. 중국의 팔선 중에서 유일한 여성 선녀로 알려진다. 팔선도에서 하선고는 한 손엔 도끼를 들고 어깨엔 꽃바구니를 멘 모습으로 묘사한다. 공양비천의 벽화 속에 도교적 신선 개념이 중첩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승려 장인 중심의 화원 집단이 민간 장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엄미술에서 종교적 교의 자리에 민간의 기복 염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벽화 속엔 두꺼비와 함께 등장하는 특별한 천인도 보인다. 그 인물은 역사 속 실존인물로 유해섬이라는 사람이다. '해섬'은 바다에 사는 두꺼비라는 뜻이다. 두꺼비 등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하마선인'으로 불리곤 했다. 두꺼비는 발가락이 세 개라 '삼족섬'으로 불렀다. 벽화 속 두꺼비의 발가락을 세 개 표현하고 있어 재밌다. 두꺼비는 어디든 유해섬을 데려다주지만 한번씩 물속으로 도망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끈에 엽전을 달아 낚아 올렸다고 한다. 엽전을 물고 있는 두꺼비 형상은 재물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삼족섬은 부의 화신으로 민가에서 환영받았다. 벽화 속 유해섬과 두꺼비의 표현은 재물과 복록을 바라는 민간의 기복을 반영한 것이다.

영산전 벽화의 압권은 천도 가지를 든 동자상이다. 동자의 붉은 상의가 강한 인상을 남긴다. 동자는 자연스럽게 부러진 큰 나뭇가지를 두 손에 들고 앞으로 성큼 나아간다. 가지는 천도 나뭇가지다. 무성한 잎은 여전히 짙푸르다. 한 송이 붉은 꽃도 생기 가득하다. 가지에는 일곱 개의 탐스러운 천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가지가 부러진 이유를 알 것 같다. 곤륜산의 서왕모가 궁중의 요지에서 신선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 때 신선들 앞에 내놓은 불로장생의 반도(蟠桃)가 저 복숭아 이런가? 부처님께 천도를 공양 올리러 가는 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환희로운가? 공양비천 동자의 발을 보라. 뒷굽이 한껏 들려 있다. 한국산사 공양비천 벽화의 백미다. 환희의 공양예경을 올린다. 영산전 벽화 속에 보현행원의 붉은 꽃이 피었다.



노재학 작가

2027년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돌로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6월 말은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계절입니다.
예약접수중
출발일 : 1차 6월23일~7월01일
2차 7월05일~7월13일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
-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
2차 27년1월21일 출발~26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4월08일 출발~4월17일 도착
27년 5월24일 출발~6월02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